

#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잇단 발견... 정부 "변명의 여지 없다"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이 12·29 제주항공 참사 초기 정부의 수습 부실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가족에게 위로로 건넸다.

전 수석은 2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전적인 책임이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유가족들이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또 (이번 유해 발견으로) 여실히 사실로 드러나서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진상에 대해 조사하라고 했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도 (향후) 어떻게 할 건 지에 대해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또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해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돌아가신 분들의 누가 안 되도록, 한이 맺히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전 수석의 공항 방문은 참사 유류품 재조사 과정에서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들의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며 다른 현장 점검과 유가족 위로 차용이다.

전 수석은 이날 무안국제공항 1층에 마련된 분향소 참배에 이어 참사 현장인 활주로 로컬라이저 방문, 유류품 재조사 현

##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위로



전성환(오른쪽)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이 20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뉴스

장 점검, 유가족 간담회를 가졌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주도 참사 유류품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전날까지 유해 추정 물체 65점이 발견됐다. 이중 9점이 유해로 확인된 가운데 7점의 신원이 파악됐다.

이날 전 수석이 공항을 방문한 시각 진행된 유류품 재조사 과정에서도 유해 추

정 물체가 발견됐다.

결국 정부는 전날 참사 수습 전반기에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참사 현장 주변을 포함한 전면 재수색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오권철 기자

## 전남교육청, 2026년 제1회 검정고시 4월 4일 시행 오롱중 등 3개 고사장에서 초·중·고졸 777명 응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4월 4일 오롱중학교, 순천승평중학교, 목포교도소 등 도내 3개 고사장에서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시행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39명, 중졸 116명, 고졸 622명 등 총 777명이 지원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해 오전 8시 4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 및 장애인등록증이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같은 사진 1매를 지참해 시험 당일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시험 중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www.jne.go.kr/인사-채용-소식/검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5월 8일(금)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염선호 기자

## 전남 화목보일러 화재 3년간 63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 전남소방본부, 8개군 산림 인접 마을에 보급

전남도소방본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림 인접 마을을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초기에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남소방은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63건, 재산 피해액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급 대상은 보성, 화순, 장흥, 진도, 곡성, 구례 등 도내 8개 군의 산림 인접 마을

이다. 화재 취약계층 가구에 총 200개를 우선 지원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목보일러실 천장에 설치하는 기구다. 화재로 인해 주변 온도가 72도에 도달하면 소화 약제를 스스로 뿜어내 불을 끄는 방식이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이번에 보급하는 자동확산소화기가 산림 인접 마을 주민들에게 든든한 1차 안전 방패가 되길 기대한다"며 "건조한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도민들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 현직 검사 "여수 영아살해 사건, 보완수사 없었다면 못 밝혔다"

### 장진영 검사 "수사 초기 검사가 흠뻑 영상 요구"

### "보완수사 후 아동학대처사→아동학대살해"

### "검사 개입 없었으면 실체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장진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영교 의원님, 실제로 가는 길을 좁게 하면 엄벌을 구할 수가 없

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장 부장검사는 서 의원이 해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핵심 증거인 흠뻑 영상 확보를 요구했고, 검찰의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처사'로 송치된 사건을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사의 개입과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피해 아동이 겪은 피해 내용의 실체에 가까이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직접 안 해도 된다면 검사들은 더 좋다"는 선배 검사의 글을 인용하며, 수사권 조정이 검사의 업무 부담은 덜어줄지언정 사법 정의 구현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을 향해 "수사기관이 어떤 경우로 핵심 증거인 흠뻑 영상을 확보했는지 국민께 상세히 알려 달라"며 "상세한 정보를 들은 국민께서도 그래요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동료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역량이 약화될 경우, 아동 학대와 같은 민생 범죄의 실체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부부는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간 총 19차례에 걸쳐 영아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

## 광주시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9세부터 18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과 진

## 학교 밖 청소년 학습 기회 제공... 광주시 교육활동비 지원

로 탐색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정책으로 9-12세는 연간 40만원(분기별 10만원), 13-18세는 연간 60만원

(분기별 1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육비, 도서 구입비, 독서실 이용료, 문화체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은 23일부터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누리집'과 '제로페이 마이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전민규 기자

## 46주기 5·18 정부 기념식 운과... 옛 전남도청 앞 유력

올해 제46주기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이 46년 전 5·18 항쟁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에서 열릴 전망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치러진 제40주기 5·18 정부 기념식 이후 6년 만이다.

20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5·18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46주기 5·18 정부 기념식 거행 장소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보훈부는 올해 정부 기념식을 항쟁의 역사적 현장 상징성 조명, 12·3 비상계엄 극복 등 의미를 담아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일형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이 5월 정식 개관하는 점도 고려됐다.

단체 사이 이견이 감지되면서 옛 전남

도청 앞 기념식이 보류되는 듯 했으나 행사 참석 내빈들의 일정과 동선 등을 조율하면서 합의에 다다르고 있다.

단체들과 보훈부는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기념식을 치르되 행사 전후 내빈들이 국립5·18민주묘지를 둘러 참배하도록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세부적인 참가 내빈과 유가족 수, 동선과 경호 방법 등은 추후 조정을 앞두고 있다.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아직 협의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보훈부가 주관하는 정부기념식만 치르고 끝나선 안된다. 5월 광주를 찾은 내빈들이 반드시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에 참배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수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